

2023
고2 연애
창비

고2 언어와 매체 창비 | 2(1)(1) 음운의 체계와 변동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1. 음운의 체계와 음운의 변동 중에서는 음운의 변동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었으며, 그 중 음운 변동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교체 - 음절의 끝소리 현상,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 ② 탈락 - 자음군단순화, ‘ㅎ’ 탈락, ‘ㄹ’ 탈락, ‘ㅡ’ 탈락
- ③ 첨가 - ‘ㄴ’ 첨가, 반모음 첨가
- ④ 축약 - 거센소리되기

2. 음운의 체계에서 자모의 체계표를 바탕으로 각 음운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각 체계표의 분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모음 -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 자음 - 조음 위치, 조음 방법

3. 음운의 변동 중 된소리되기를 특정하여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열음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뀜. ② 용언 어간 말 비음 ‘ㄴ, ㄹ’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뀜.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뀜. ④ 한자어 내 ‘ㄹ’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뀜.

지문 분석

① 음운의 체계

한 언어에서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최소의 말소리(‘음운’의 개념)를 음운(음운에는 ‘모음, 자음, 반모음’과 같이 나누어 분리할 수 있는 ‘분절 음운’과, 말소리의 길이와 같이 나누어서 분리할 수 없고 분절 음운에 얹혀서만 실현되는 음운인 ‘비분절 음운’이 있음.)(음운에 대해 묻는 문제에, 분절 음운에 얹혀서만 실현될 수 있는 음운이 비분절 음운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이라고 한다. 예컨대 [국어에서 ‘물[水]’과 ‘불[火]’은 ‘ㅁ’ 소리와 ‘ㅂ’ 소리의 차이로 말의 뜻이 달라진다. 이러한 ‘ㅁ’, ‘ㅂ’ 각각을 음운이라고 한다. ‘산[山]’과 ‘손[手]’에서 말의 뜻을 달라지게 하는 ‘ㅅ’와 ‘ㅆ’ 역시 음운이다.]([: 음운의 예])(여러 예를 제시하고 그 중 말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음운은 한 언어 안에 있는 다른 음운들과 더불어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음운의 특징)

▶ 음운의 개념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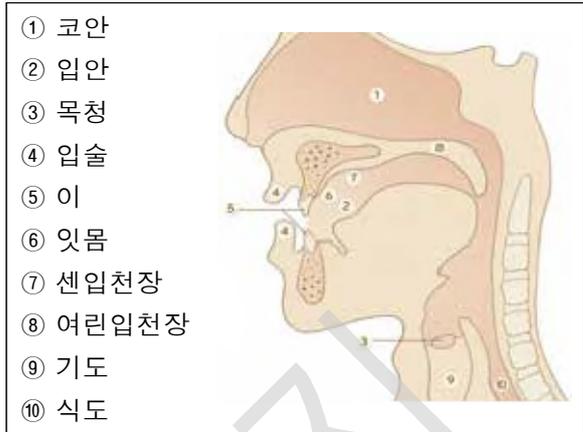
음),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 **목청소리(성문음)**(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로 나뉜다. [입술소리는 두 입술을 맞대어 내는 소리이고, 잇몸소리는 혀끝을 윗잇몸에 대어 내는 소리이다. 센입천장소리는 혀의 앞부분을 센입천장에 대어 내는 소리이며, 여린입천장소리는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대어 내는 소리이다. 목청소리는 목청 사이에서 내는 소리이다.]([]: 자음의 조음 위치 설명)

▶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와 특징

조음 방법(자음의 구분 기준②)에 따라서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의 분류)으로 나뉜다. [파열음은 폐에서 나온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고, 마찰음은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좁힘으로써 마찰시켜 내는 소리이다. 파찰음은 폐에서 나온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서서히 마찰시켜 내는 소리이다. 파열음, 파찰음은 **목청문(성문)의 상태**(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 기준 / 목청문(성문): 양쪽 목청(성대) 사이에 있는 좁은 틈)에 따라 다시 예사소리(평음), 된소리(경음), 거센소리(유기음)로 구분된다. 그리고 <비음>은 폐에서 나온 공기의 대부분을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고, 유음은 **혀의 중앙**(혀끝으로 잇몸을 가볍게 치면서 공기를 구강 가운데로 내보내는 경탁음 [r]로, '나라', '다리' 등이 이에 속함.)이나 **양옆**(설측음 [l]로, '달', '일' 등이 이에 속함.)으로 공기를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자음의 조음 방법 설명)

>< : 비음과 유음은 공기가 나오는 경로에 따라 나뉜.)

▲ 발음 기관



▶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와 특징

지금까지 설명한 자음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입술소리 (두 입술)	잇몸소리 (혀끝-윗잇몸)	센입천장소리 (혀의 앞부분 - 센입천장)	여린입천장소리 (혀의 뒷부분-여린입천장)	목청소리 (목청 사이)
	파열음	예사소리: ㅂ, 된소리: ㅃ, 거센소리: ㅍ	ㄷ, ㄸ, ㅌ		ㄱ, ㅋ
마찰음	예사소리: ㅅ, 된소리: ㅆ, 거센소리: ㅈ	ㅅ, ㅆ			ㅎ
파찰음	예사소리: ㅊ, 된소리: ㅌ, 거센소리: ㅊ		ㅊ, ㅌ, ㅊ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자음 체계표를 <보기>에 제시하고 단어의 발음에 관한 변화를 묻는 문제에, “깡은[깡는]’을 보면 받침소리 [ㄱ]은 ‘ㄴ’ 앞에서 조음 위치의 변화 없이 조음 방법을 달리하여 비음으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 “입+만→[임만]’은 첫음절 끝의 파열음이 자음과 결합하여 비음으로 바뀌는 변동이군.’과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음 체계표를 바탕으로 자음의 변화를 묻는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므로 연습이 필요

합니다.

② 음운의 변동

음운이 조건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현상(‘음운 변동’의 개념)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음운 변동의 유형)(음운의 변동에서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여러 변동 현상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으며,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음운 변동의 횟수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또한 서술형에서 ‘**앞문**’, ‘**선릉**’, ‘**공권력**’ 등과 같은 단어를 제시하고 단어에 적용되는 음운 변동 현상을 쓰라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으로 나눌 수 있다.

▶ 음운 변동의 개념과 유형

교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교체’의 개념) **음절의 끝소리 현상**, **된소리 되기(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교체 현상의 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교체 현상의 개념과 예

■ **음절의 끝소리 현상**(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평파열음화**’라고도 부릅니다 **지도 선생님에 따라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아닌 ‘평파열음화’로 문제에 출제되기도 하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소리 나는 현상(‘음절의 끝소리 현상’의 개념)이다. 이때 ‘**ㄱ, ㄷ, ㅂ**’이 아닌 자음이 음절 끝에서 [ㄱ], [ㄷ], [ㅂ]으로 바뀌는 경우(음절의 끝소리 현상 중 교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교체에 해당한다.

예) **밖**→[박], **동+넙**→[동넙], **웃**→[온], **낮**→[난], **꽃**→[꼰], **끝**→[꾼], **잎**→[입]

□ 관련 규정

표준어 규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 음절의 끝소리 현상의 개념과 예

■ **된소리되기(경음화)**(된소리되기는 음운 변동을 개별적으로 묻는 유형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변동 현상입니다. 된소리되기의 조건을 제시하고 각 조건에 알맞은 예시를 묻거나, 선지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예시 단어를 들고 그에 관해 설명하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아래 ‘관련 규정’에 설명된 된소리되기의 환경과 각 예시를 눈여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열음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예 독서[독써], 책방[책빵]) **용언의 어간 말 비음 ‘ㄴ, ㄹ’ 뒤,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예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때가] 등), **한자어 내 ‘ㄹ’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예 발전[발쩐], 출석[출썩] 등)]([: ‘된소리되기’의 개념)이다.

예) **국+밥**→[국뺨], **신+--고**→[신 : 꼬], **할 줄**→[할쫘], **발달**→[발뺨]

□ 관련 규정

• 표준어 규정 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ㄹ), ㄷ(ㅅ, ㅆ, ㅈ, ㅊ, ㅌ, ㅍ), ㅂ(ㅍ, ㅓ, ㅕ, ㅖ, ㅗ, ㅛ, ㅜ, ㅠ, ㅡ)’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깎다**[깎따], **닭장**[닥짱], **뽕대다**[뽕뺨대다], **발갈이**[발까리], **옴조리다**[옴쫘리다]

• 표준어 규정 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껴안다**[껴안따], **안고**[안꼬], **더듬지**[더듬찌], **닭고**[닭 : 꼬]

• 표준어 규정 25항 어간 받침 ‘ㄹ, ㅍ’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넓게[널게], 훑다[할따], 땀지[땀 : 짜]

- 표준어 규정 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갈등[갈똥], 말살[말쌀], 몰상식[몰쌍식]

다만, 같은 단어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예) 허허실실[허허실실], 절절-하다[절절하다]

- 표준어 규정 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할 바름[할빠름], 갈 곳[갈곶], 만날 사람[만날싸람]

다만, 끊어서 말할 때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예) 할걸[할겘], 할지라도[할찌라도]]([]: 제27항 [붙임] 규정에 해당하는 단어인 ‘할수록[할쑤록]’을 제2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예로 제시하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된소리되기의 개념과 예

■ 비음화

파열음 ‘ㅂ, ㄷ, ㄱ’이 비음 앞에서 각각 비음 [ㅁ], [ㄴ], [ㅇ]으로 바뀌는 현상(비음화의 개념 / 이 외에도 ‘ㄹ’이 ‘ㄹ’을 제외한 다른 자음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는 현상도 있음. 예) 독립[동닙], 법률[범눌], 종로[종노] 등)이다.

예) 잡+-는→[잠는], 뜯+-는→[튼는], 국물→[궁물]

□ 관련 규정

- 표준어 규정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ㅌ, ㄷ, ㅌ, ㅌ, ㅌ, ㅎ), ㅂ(ㅍ, ㅂ, ㅂ, ㅂ)’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예) 먹는[멍는], 닫는[단는]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예) 책 넣는다[챙넌는다], 흙 말리다[흥말리다], 옷 맞추다[온말추다], 값 매기다[감매기다]

- 표준어 규정 제19항 받침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예) 담력[담 : 녍], 침략[침 : 낙], 강릉[강능], 향로[향 : 노], 대통령[대 : 통녕]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예) 막론[막논→망논], 석류[석뉴→성뉴], 협력[협녁→협녁], 법리[법니→범니]

▶ 비음화의 개념과 예

■ 유음화(비음화와 유음화는 단독으로 문제에 출제되기보다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현상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 유형에서 선지의 일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음 ‘ㄹ’ 앞이나 뒤에서 비음 ‘ㄴ’이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유음화의 개념)이다.

예) 신라→[실라], 칼날→[칼랄]

□ 유음화의 예외적 경우(아래 제시된 표준어 규정 제20항 ‘다만’ 규정에 해당함.)

한자어에 ‘란, 량, 력, 로, 론, 료, 례, 령’ 등이 접사처럼 붙어 이뤄진 말들의 경우 ‘ㄴㄴ’으로 발음된다.

□ 관련 규정

표준어 규정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예) 난로[날 : 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럼끼]

[붙임] 첫소리 ‘ㄴ’이 ‘ㄹ’, ‘ㄷ’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예) 닿는[달른], 뚫는[뚫른], 할네[할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예) 의견란[의 : 견난], 임진란[임 : 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판녁], 공권력[공권녁], 동원령[동 : 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 : 원논], 입원료[이뵤노], 구근류[구근뉴]

▶ 유음화의 개념과 예

■ 구개음화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잇몸소리 ‘ㄷ, ㅌ’이 각각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구개음화’의 개념 / 근대 국어 시기에는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기도 함. 예) 티다[打]>치다, 좋다[好]>좋다)이다. ‘구개음화’에서 ‘구개음’은 센입천장소리를 가리킨다.

예) 굳--+이→[구지], 밭+이→[바치]

□ 관련 규정

표준어 규정 제17항 받침 ‘ㄷ, ㅌ(ㄷ)’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굳이든다[고지든따], 미달이[미 : 다지], 벼훔이[벼훔치]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예) 굳히다[구치다], 달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 구개음화의 개념과 예

탈락은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탈락’의 개념)이다. [자음군(둘 이상의 자음이 연쇄된 것) 단순화, ‘ㅎ’ 탈락, ‘ㄹ’ 탈락, ‘ㅡ’ 탈락]([]: 탈락의 유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탈락 현상의 개념과 유형

■ 자음군 단순화

음절 끝에서는 하나의 자음밖에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자음군 단순화가 발생하는 이유)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자음군 단순화의 개념)(‘**ㅅㅅ**일’의 음운 변동 과정 중간에 기호를 매기고 각 과정에 적용된 음운 변동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ㅅㅅ’일은 자음군 단순화와, ‘ㄴ’ 첨가, 비음화가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단어입니다.)이다. 예) 흙→[흑], 삶→[삼 :], 값+도→[갑또], 앓--+는→[안는]

□ 관련 규정

• 표준어 규정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ㄹ, ㄷ, ㄷ’,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예) 녀[녀]. 앓다[안따]. 여덟[어덜]. 외곶[외골]. 할다[할따]. 값[갑]. 앓다[업 : 따]

다만, 다만, ‘밭-’은 자음 앞에서 [ㅅ]으로 발음하고, ‘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예) 밭다[밭 : 따], 밭소[밭 : 쏘], 밭지[밭 : 찌], 밭는[밭 : 는→밤 : 는], 밭게[밭 : 게], 밭고[밭 : 꼬], 넙-죽하다[넙쭈카다], 넙-뚱글다[넙뚱글다]

• 표준어 규정 제11항 겹받침 ‘ㄹ, ㄹ,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예) 닭[닥], 흙과[흑과], 막다[막따], 늑지[늑찌], 삶[삼 :], 젊다[점 : 따], 읊고[읍꼬], 읊다[읍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예) 맑게[말께], 묶고[물꼬], 얽거나[얼거나]

▶ 자음군 단순화의 개념과 예

■ ‘ㅎ’ 탈락

용언의 어간 말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ㅎ’ 탈락의 개념)(‘ㅎ’에 관련된 발음은 ‘탈락’이라는 한 현상에 국한되어 출제되기보다는 ‘ㅎ’과 관련된 발음을 두루 묻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므로, ‘축약’ 현상 중 ‘거센소리되기’ 아래에 제시된 ‘관련 규정’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이다.

예) 좋--(으)ㄴ→[조 : 은], 놓--아→[노아], 잃--어→[이러], 쌓--이--다→[싸이다]

□ 관련 규정

표준어 규정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4. ‘ㅎ(ㄷ,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예) 낳은[나은], 많아[마 : 나], 앓은[아는], 닳아[다라], 싫어도[시러도]

▶ ‘ㅎ’ 탈락의 개념과 예

■ ‘ㄹ’ 탈락

용언의 어간 말 ‘ㄹ’이 특정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ㄹ’ 탈락의 개념 / 발음과 표기 모두 ‘ㄹ’이 탈락된 형태임.)이다.

예) 날--는→[나는], 갈--니→[가 : 니], 살--ㄴ→[산 :], 불--오→[부 : 오]

□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예) 갈다:가니, 간 / 놀다:노니, 논 / 둥글다:둥그니, 둥근 / 어질다:어지니, 어진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예)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다마다, (하)자마자, (하)지 마라, (하)지 마(아)

▶ ‘ㄹ’ 탈락의 개념과 예

■ ‘ㄷ’ 탈락

용언의 어간 말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ㄷ’ 탈락의 개념 / 발음과 표기 모두 ‘ㄷ’가 탈락된 형태임.)이다.

예) 쓰--어→[써], 잠그--아도→[잠가도]

□ 관련 규정

한글 맞춤법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4. 어간의 끝 ‘ㅊ, ㅡ’가 줄어질 적

예) 꼬다:꺼, 꺾다 / 뜨다:떠, 뺏다 / 크다:커, 컸다 / 고프다:고파, 고폻다

▶ ‘ㅡ’ 탈락의 개념과 예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끼어드는 현상**(‘첨가’의 개념)이다. ‘**L** 첨가

(첨가의 유형)가 대표적이다.

■ ‘L’ 첨가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나 반모음 ‘j’로 시작하는 경우, 앞뒤의 말 사이에 ‘L’이 첨가되는 현상(‘L’ 첨가의 개념)(‘**발이랑 논을**’의 ‘**발이랑**’과 ‘**발이랑에 비닐을 씌우다**’의 **발이랑에**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자의 ‘**발이랑[바치랑]**’은 구개음화, 후자의 ‘**발이랑[반니랑]**’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 ‘L’ 첨가, 비음화가 일어난 현상입니다.)이다.

예) 맨+입→[맨닙], 숨+이불→[숨 : 니불], 색+연필→[생년필]

□ 관련 규정

표준어 규정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아, 여, 요, 유’인 경우에는, ‘L’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예) 막-일[망닐], 샷-일[상닐], 꽃-잎[곤닙], 내복-약[내 : 봉낙], 녹막-염[능망념], 콩-엿[콩녘], 담-오[담 : 뇨]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L’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예)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먄금], 검열[검 : 녘/거 : 멸], 올랑-올랑[올랑놀랑/올랑올랑], 금융[금녕/그똥]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예) 한 일[한닐], 옷 입다[온닙따] 잘 입다[잘립따]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L(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예) 6·25[유기오], 3·1절[사밀쩨], 송별-연[송 : 벼련], 등-용문[등용문]

▶ ‘L’ 첨가의 개념과 예

□ 그 외의 첨가 현상

반모음 첨가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이 첨가되는 현상)

예) 되어 → [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발음되는 현상**(‘축약’의 개념)이다. **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축약의 유형)가 대표적이다.

▶ 축약 현상의 개념과 유형

■ 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

예사소리 ‘ㅂ, ㄷ, ㄱ, ㅈ’이 ‘ㅎ’과 합쳐져 거센소리 [ㅃ, ㄸ, ㄱ, ㅉ]으로 발음되는 현상(‘거센소리되기’의 유형)이다. 예) 입학→[이팍], 날+--다→[나 : 타], 많+--고→[만 : 코], 좋+--지→[조 : 치]

□ ‘ㅎ’의 발음과 관련된 규정

[표준어 규정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ㅎ’의 발음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ㅎ’은 탈락, 축약 현상과도 관련되며 기타 다른 발음의 변화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ㅎ’과 관련된 발음을 묻는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ㅎ’과 관련된 발음과 각 예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 ‘ㅎ(ㄸ, ㅌ)’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예** 농고[노코], 종던[조 : 던], 쌀지[싸치]
 [붙임 1] 받침 ‘ㄱ(ㄷ), ㄷ, ㅌ(ㅌ)’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예 각하[가가], 밝히다[발키다], 만형[마형], 넓히다[널피다], 꽃히다[꼬치다]
2. ‘ㅎ(ㄸ, ㅌ)’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예 달소[다 : ㅆ], 많소[만 : ㅆ], 싫소[실ㅆ]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예** 놓는[논는], 쌀네[싼네]
 [붙임] ‘ㄸ, ㅌ’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예 양네[안네], 양는[안는], 똥네[똥네→똥레], 똥는[똥는→똥른]
4. ‘ㅎ(ㄸ,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예 날은[나은], 쌀이다[싸이다], 많아[마 : 나]

▶ 거센소리되기의 개념과 예

지금까지 표준 발음법에 근거하여 국어의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현실 발음에서는 [‘ㄱ’와 ‘ㅋ’가 잘 구별되지 않는다거나, **말소리의 길이에 따른 의미 변별**(**예** 눈[眼] 눈[雪 :], 말[馬] 말[言 :], 밤[夜] 밤[粟 :]) 등이 점차 사라져 가는 것 등]([]: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차이가 나는 예)이 그 예이다. [언어 규범은 오랜 기간 고정되어 있는 반면 **실제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는 까닭**(언어의 역사성 - 언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음운이나 어휘 등의 측면에서 생성, 성장, 소멸하여 변화하는 특성)]([]: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이러한 차이가 생겨난다. 따라서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발음을 익히는 동시에 실제 언어생활에서 관찰되는 현실 발음과 표준 발음의 차이 또한 인식할 필요가 있다.**(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차이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2022
고2 연애
창비

고2 언어와 매체 창비 | 2(1)(1) 음운의 체계와 변동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① 음운의 체계

한 언어에서 을 하여 주는 의 ('음운'의 개념)를 음운(음운에는 '____, _____, _____'과 같이 나누어 분리할 수 있는 '____ 음운'과, 말소리의 _____와 같이 나누어서 분리할 수 없고 _____에 얽혀서만 실현되는 음운인 '____ 음운'이 있음.)(음운에 대해 묻는 문제에, 분절 음운에 얽혀서만 실현될 수 있는 음운이 비분절 음운이라는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이라고 한다. 예컨대 [국어에서 '물[水]'과 '불[火]'은 'ㄹ' 소리와 'ㅂ' 소리의 차이로 말의 뜻이 달라진다. 이러한 'ㄹ', 'ㅂ' 각각을 음운이라고 한다. '산[山]'과 '손[手]'에서 말의 뜻을 달라지게 하는 'ㅅ'와 'ㅆ' 역시 음운이다.]([]: _____의 예)(여러 예를 제시하고 그 중 말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음운은 한 언어 안에 있는 다른 음운들과 더불어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음운의 _____)

▶ 음운의 _____과 _____

국어의 음운 체계 중 모음(단모음 _____개, 이중 모음 _____개로 총 _____개로 이루어짐.) 체계를 먼저 알아보자.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국어에는 10개의 단모음이 있다.(국어의 _____개수)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없는 모음(단모음의 _____ / 단모음 중 '____'와 '____'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함.)이다. 이들은 해당 모음을 발음할 때의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에 따라(단모음의 구분 기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혀의 앞뒤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혀의 _____이 입 안의 _____에 위치하여 발음)		후설 모음 (혀의 _____이 입 안의 _____에 위치하여 발음)	
	평순 모음(입술을 _____지 않고 발음)	원순 모음(입술을 _____려 발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u>고모음</u> (입을 _____ 열고 혀의 위치를 _____ 발음)	—	—	—	—
<u>중모음</u> (입을 _____으로 열고 혀의 높이를 _____으로 하여 발음)	—	—	—	—
<u>저모음</u> (입을 _____ 벌리고 혀의 위치를 가장 _____서 발음)	—	—	—	—

▲ 모음 체계표를 <보기>에 제시하고 예시 단어의 적절한 발음(입의 _____, 혀의 _____, 입술 _____, 혀의 _____)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체계표에 빈칸을 뚫고 들어갈 모음을 묻는 문제가 간혹 출제되는 하지만, 주로 모음 체계표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목업 배포 김시

2022
고2 연매
창비

고2 언어와 매체 창비 | 2(1)(1) 음운의 체계와 변동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음운의 개념과 예

개념	한 언어에서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최소의 말소리
예	‘물[水]’과 ‘불[火]’의 ‘ㅁ’과 ‘ㅂ’, ‘산[山]’과 ‘손[手]’의 ‘ㅍ’와 ‘ㅅ’

3. 국어의 모음 체계

기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 변화 유무
----	-----------------------------------

변화가 없는 모음 : 단모음	변화가 있는 모음 : 이중 모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혀의 앞뒤 위치 : 전설·후설 모음 혀의 높낮이 : 고·중·저모음 입술 모양 : 원순·평순모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계 : [ɪ, ʏ, ʉ, ɨ, ɯ] ‘w’ 계 : [ɰ, ɰ̟, ɰ̠, ɰ̡]

2.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표

㉠ ㉡ ㉢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ㅏ	ㅑ	ㅓ	ㅕ
중모음	ㅗ	ㅛ	ㅜ	ㅠ
저모음	ㅜ		ㅡ	

㉠: 혀의 앞뒤 위치

㉡: 입술의 모양

㉢: 혀의 높이

TEST 3단계

1. 음운의 개념과 예

개념	한 언어에서 _____을 구별하여 주는 _____의 _____
예	‘물[水]’과 ‘불[火]’의 ‘_’과 ‘_’, ‘산[山]’과 ‘손[手]’의 ‘_’와 ‘_’

3. 국어의 모음 체계

기준	발음할 때 _____이나 _____ 변화 유무	
↓		
	변화가 없는 모음 : _____	변화가 있는 모음 : _____
• 혀의 앞뒤 위치 : _____ 모음		• ‘i’ 계 : _____
• 혀의 높낮이 : _____ 모음		• ‘w’ 계 : _____
• 입술 모양 : _____ 모음		

2.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표

⊖	⊖	_____		_____	
	Ⓛ	_____	_____	_____	_____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_____

Ⓛ: _____

Ⓢ: _____

4.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표

조음 위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조음 방법	예사소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된소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거센소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예사소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된소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거센소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예사소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된소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

_____ ()	_____
_____ ()	_____ - _____
_____ ()	_____ - _____
_____ ()	_____ - _____
_____ ()	_____

6.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의 분류

파열음	폐에서 나온 _____의 _____을 완전히 _____가 _____서 내는 소리
마찰음	공기가 지나가는 _____를 _____으로써 _____시켜 내는 소리
파찰음	폐에서 나온 _____의 _____을 완전히 _____가 서서히 _____시켜 내는 소리
비음	폐에서 나온 _____의 대부분을 _____로 내 보내면서 내는 소리
유음	_____의 _____이나 _____으로 공기를 _____면서 내는 소리